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2019년 12월 31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8천 km ² 	인구 4.7백만명 (2019 ^e)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1,376억 달러 (2019 ^e) 	1인당GDP 29,267달러 (2019 ^e) 	통화단위 Kuwaiti Dinar 	환율(U\$기준) 0.30 (고정환율) 

-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이란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있음.
-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8%에 불과하나, 2018년 기준 세계 7위 규모의 원유 매장량 및 세계 19위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 1인당 GNI가 세계 27위(역내 4위)로 소득수준이 높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축적한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풍부한 사회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안정됨.
- 다만, 저유가 상황 장기화 및 OPEC 감산 합의에 따라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열위해지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나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9. 6. 11 수교 (북한과는 2001. 4. 4 수교)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82), 문화협정('83), 이종과세방지협약('00), 경제·기술협력협정('06), 투자증진·보호협정('07), 형사사법공조조약('08), 범죄인인도조약('13), 외교관·관용·특별사증면제협정('15), 수형자이송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1,405,816	1,162,575	1,252,986	전력용 기기, 자동차, 공기 조절기 및 냉난방기
수 입	7,262,270	9,593,955	12,794,285	원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LPG)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9월말 누계) 30건, 26,57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0.6	2.9	-3.5	1.2	0.6
소비자물가상승률	3.7	3.5	1.5	0.6	1.5
재정수지/GDP	5.6	0.3	6.3	8.7	6.7

자료: IMF, EIU

저유가 상황 장기화로 경제성장 부진 지속

-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이 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고유가 상황에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2011년 9.6%, 2012년 6.6%), 2013년 이후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의 반전을 위한 OPEC+의 감산 합의에 따른 산유량 감소로 2017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18년에는 국제유가가 반등하여(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2017년 54.71 달러 → 2018년 71.34달러)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으나 1.2% 성장에 그쳤으며, 2019년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여(배럴당 64달러 수준) 0.6%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OPEC+의 감산 합의 내용

단위 : 천 배럴/일

구분	생산능력	감산*	추가 감산**	감산 후 생산량
쿠웨이트	2,809	-85	-55	2,669
전체	45,650	-1,195	-503	43,952

* 175차 OPEC 회의 및 5차 OPEC+ 석유장관 회의

** 177차 OPEC 회의 및 7차 OPEC+ 석유장관 회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내외로 안정적

- 쿠웨이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3년간 1%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IHS Markit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2019년 소비자물가가 0.9%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재정수입의 원천인 석유 부문의 부진으로 재정 위축

- 쿠웨이트는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재정구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2010년대 초에는 막대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부터 저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크게 위축되었음.

※ IMF는 쿠웨이트의 재정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기록 중이나, 미래세대기금(Future Generation Fund) 적립의무 이행 후의 재정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보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8,584	642	7,757	24,049	8,971
경상수지/GDP	7.5	0.6	6.5	17.0	6.5
상 품 수 지	27,993	20,054	25,648	45,711	31,770
상 품 수 출	55,335	46,617	55,175	77,080	64,237
상 품 수 입	27,343	26,562	29,527	31,370	32,467
외 환 보 유 액	25,659	28,965	31,430	34,788	35,688
총 외 채	40,877	42,652	55,030	59,672	64,026
총외채잔액/GDP	35.7	39.0	46.0	42.1	46.5
D.S.R.	4.4	3.3	3.0	3.8	4.7

자료: IMF, EIU

2019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 위축 및 총수출증가율 마이너스 전환

-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평균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4달러)가 2018년(배럴당 71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크게 위축되고(2018년 17.0% → 2019년 6.5%), 다소 큰 폭의 마이너스 수출성장률(2019년 -12.1%)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국제유가가 반등하자(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2017년 54.71달러 → 2018년 71.34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및 상품수지 흑자가 대폭 증가한 바 있는 등 쿠웨이트 경제지표는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함.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

- 재정수지 부족분 보충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결과 외채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과거 유가 호황 시기에 석유수출 수입(收入)을 투자하여 조성한 대규모의 국부펀드(2018년 기준 GDP의 420% 이상)가 경제 및 재정을 지탱해주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임.

구조적취약성

석유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 부문이 GDP의 50%, 재정수입의 90% 및 총수출의 80~90%를 차지하는 등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국제유가 하락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성장잠재력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에 의하면 쿠웨이트는 2018년 말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세계 7위) 및 1.7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19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이는 2018년도의 평균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원유 및 천연가스를 향후 각각 91년 및 97년 간 생산 가능한 규모임.

비석유 부문 육성 등 산업다변화 노력 필요

- 경제 및 재정이 석유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비석유 부문 육성 및 부가세 도입 등 세수 다변화 등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정책성과

의회의 반대로 각종 경제·세제 개혁 일정 지연

- 쿠웨이트는 걸프협력위원회(GCC) 소속 6개국 중 유일하게 의회가 존재하는 나라임. 의회는 국왕이 선임한 내각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비교적 선진화된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행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의 개혁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음.
- 세수 다변화 필요에 따라 석유 의존도가 높은 GCC 회원국들은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역시 2018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의회 반대로 2021년 이후로 도입이 연기됨.

정치동향

왕위 계승 관련 왕실 내에 분파 간 갈등 존재

- 쿠웨이트 왕실 알 사바(al Sabah) 가문 내에는 자비르(Jaber)계와 살림(Salem)계가 번갈아 가며 왕위를 계승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2006년 자비르 가계가 연속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왕실 내의 갈등이 존재함.
- 2006년 즉위한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현 국왕(Emir)은 현재 90세의 고령이며,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자비르계인 Nawaf 왕세제(王世弟) 역시 82세의 고령으로 차기 국왕이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자비르계와 살림계 사이의 권력투쟁이 전망됨.

사회동향

풍부한 복지혜택 제공 등으로 사회적 안정 유지

- 2011년 중동 전역에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유혈사태로 격화되기도 하였으나, 쿠웨이트에서는 부패한 정부 관료(당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규모의 평화적 시위만 발생한 바 있음. 이후에도 사회안정을 위협할 정도의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배경은 높은 생활수준 및 풍부한 복지혜택 덕분이라는 분석이 우세함.

국제관계

사우디 주도의 카타르 단교 사태에 대한 중재 지속

- 걸프 지역 6개(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수니파 왕정국가들은 걸프협력회의(GCC)를 결성하며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카타르의 무슬림형제단(급진 이슬람 세력) 비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 카타르와 단교하면서 결속이 약화됨. 쿠웨이트는 이와 관련하여 오만과 더불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나 단교 상황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는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임.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쿠웨이트 내 시아파(인구의 약 35%)를 이용하여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함. 아울러 쿠웨이트 내 종파(수니파 대 시아파) 갈등은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19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 93억 달러(단기 1.5억 달러, 중장기 91.5억 달러) 중 연체잔액은 1.9백만 달러로 전체의 0.02%에 불과하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2등급(2019.01)	2등급(2018.01)
Moody's	Aa2 (2019.05)	Aa2 (2017.05)
Fitch	AA (2019.04)	AA (2018.05)

OECD,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쿠웨이트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

- OECD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쿠웨이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AA 등급, Moody's는 Aa2 등급을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들 모두 쿠웨이트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수준을 이루었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축적한 국부를 바탕으로 저유가 상황 장기화 등 불리한 시장상황에도 안정적인 물가·환율 관리, 경상·재정수지 흑자 기록 등 비교적 견고한 모습임.
-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산업다각화 및 세수 확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 내부의 계파 간 권력 투쟁, 정책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으로 인해 각종 경제·세제 개혁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적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중립적인 외교 정책으로 국제관계가 양호한 편으로 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사회·외교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임.